

“전반 역습 2번에 2실점…포르투갈 측면 크로스에 당했다”

‘8강행 좌절’ 신태용 감독 일문일답

“안방이라 당당히 싸우고 싶어 공격적으로 선수들 후반 1골 만회 마지막 투혼 고마워”



신태용 감독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에 도전한 한국 U-20 대표팀의 여정이 아쉽게 마무리됐다. 3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대회 조별리그를 초반 2연승으로 빠르게 통과하고도 1차 목표포 삼은 8강 진입에 실패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추가시간 포함 93분 내내 목이 터져라 제자들을 독려했던 신태용(47) 감독은 쓰러진 패배에서도 희망을 바라봤다. 경기 후 공식기자회견에서 그는 차분한 어조로 “전반 2차례 역습에 2실점한 것이 원인이다. 켜어도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다.

-8강 진출이 좌절됐다.

“아쉽다. 유난히 포르투갈에 운이 따랐다. 빗나갔을 법한 상황에도 불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로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빠르게 실점했고, 위축됐다. 1골을 만회하며 마지막까지 발휘한 투혼이 너무 고맙지만 목표치를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

-투 톱도, 측면 대응도 안 좋았다.

“포르투갈 중앙수비진이 제공권은 좋지않지만 뒷공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진 숫자를 늘린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상대 측면 자원이 바뀐 건 딱히 문제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 오히려 측면 크로스에 흔들린 것이 찬스를 내준 이유였다.”

-지금 선수들의 미래를 평가한다면.

“본선 상대를 볼 때, 기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팀들은 최종엔트리 전부가 현지 명문클럽 소속이다. 그런데 우리 상당수가 아마추어에서 뛰고 있고, 프로 소속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성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노력 이상의 실력차가 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기량과 가능성은 충분하다. 작은 실수가 많은 것은 부족한 실전에서 비롯됐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정면대결을 하고 싶었다.

“꼭 이기고 싶었고, 더욱이 이곳은 우리 안방이다.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섰고, 강하게 압박하려 했다. 수비 조직이 흔들린 건 아쉬워도 그저 수비만 하고 싶지 않았다. 당당히 싸우면서 수확을 얻고 싶었다.”

-FC바르셀로나 콤비(이승우·백승호)에게 조언을 한다면.

“세계 최고의 명문클럽에 몸담고 있지만 경기에 뛰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들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바르셀로나만 고집하기보다 좀 레벨이 떨어지더라도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가야 한다.” 천안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백승호의 뜨거운 눈물 백승호(오른쪽)를 비롯한 한국선수들이 3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1-3으로 패한 뒤 눈물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빠져 나오고 있다. 천안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힘을 내” 천안별 가득 메운 붉은악마의 함성

■ 현장리포트

좁히기 힘든 격차에도 응원·격려 쏟아져 개최국 한국 16강전서 탈락…홍행 타격

한국-포르투갈의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16강전이 열린 30일 천안종합운동장. “대~한민국”의 우렁찬 함성은 조금도 멎지 않았다. 한국이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른 전주월드컵경기장,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2만1361명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다만 ‘간절함’이 더해졌다. 이날 한국은 몹시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초반 일찌감치 2실점하며 끌려갔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1차 목표포 삼았던 8강 진출이 전반 45분 만에 가물가물해졌다. 사력을 다했지만,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이 대회에서 2차례 정상을 밟은 포르투갈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단판승부에서 쉽사리 좁히기 힘든 격차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힘을 내”라는 격려의 외침이 터졌

다.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어린 태극전사들을 관중은 아낌없는 박수와 탄성으로 격려했다.

다른 이유에서도 한국은 좀더 높이 올라가야 했다. 개최국의 성적은 대회 흥행과 직결된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36경기의 관중은 총 29만 5410명, 평균 8206명이었다. 2013년 터키대회(5558명)와 2015년 뉴질랜드대회(7628명)보다는 높지만, 2011년 폴란드·우크라이나대회(2만5190명)와 2009년 이집트대회(2만4915명)에는 크게 못 미쳤다. 20일 전주에서 벌어진 한국-기니의 개막전에 가장 많은 3만7500명이 입장했다. 23일 한국-아르헨티나전(전주)은 2만7058명, 26일 한국-잉글랜드전(수원)은 3만5279명이었다.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에만 총 9만9837명(평균 3만 3279명)이 입장에 전체의 33.8%를 점유했다.

스폰서 확보와 마케팅 및 수익사업을 중시하는 FIFA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개최국이 토너먼트 첫 판에서 탈락했으니 대회 흥행에도 더욱 빨간 등이 켜지게 됐다. 다음달 11일 결승전까지는 여전히 많은 경기가 남아있다. 개최국 팬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야 하는 FIFA와 조직위원회로서는 너무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천안 | 남정현 기자

선축 메리트 없엔 ‘ABBA’ 승부차기

양 팀 한 번씩 번갈아 선축·후축 FIFA, 이번 대회부터 시범 도입

승부차기에서 먼저 차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차는 편이 유리한지는 축구에서 쉽게 정답을 알 길이 없는 숙제를 가운데 하나였다. 선축이 성공할 경우 나중에 차는 선수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게 된다는 측면에선 먼저 차는 편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고, 상대팀의 결과를 보고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나중에 차는 팀이 유리하다는 설도 있다.

이처럼 해묵은 숙제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여전히 1순위 키퍼를 내세우는 팀이 유리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 선후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승부차기 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부터 양 팀이 번갈아 선축하는 방식의 새로운 승부차기 제도를 도입했다. 16강전부터는 연장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승부차기에 돌입하는데, 기존 방식이 아닌 ‘ABBA’식으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동전 던지기로 선축 또는 후축을 결정한 뒤 A팀-B팀-A팀-B팀의 순서로 승부차기를 진행했다. 새로 바뀐 방식은 A팀-B팀-B팀-

A팀-A팀-B팀-B팀의 순이다. 양 팀 각각 5명의 키퍼가 승부차기를 벌인 뒤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6번째 키퍼부터 순서를 바꿔 B팀-A팀-A팀-B팀-B팀-A팀의 순으로 서든데스 대결을 이어간다.

이는 3월 축구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연례평의회에서 ‘축구의 공정함과 매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로 승부차기 방식을 변경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IFAB는 당시 “선축팀의 첫 키퍼가 승부차기를 성공할 경우 후축팀보다 승리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점점 더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승부차기 순서에 관계없이 공정한 환경에서 승리팀을 가리기 위해 ‘ABBA’의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 dohoney@donga.com

숯불구이의 고민... 연기를 확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종류의 로스타 회사 직판합니다.

사각 숯불양면 무연로스타

가스전용돌판로스타

사각착화식 무연로스타

특허출원중

무연로스타의 특징점

- 경제성**
 - 테이블에서 가스로 즉석착화하므로 장치인력과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고 연료비(숯)가 절감됩니다.
 - 고기구이중 연기나 그을음이 거의 나지 않아 배기, 덕트가 필요없습니다.
- 편리성**
 - 전기 및 후드, 덕트가 필요치 않은 자연 연소방식으로 서랍식 물받이, 재발이 등 청소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 특수 코팅된 석쇠, 실실이 석쇠, 망석쇠, 알미늄 코팅 석쇠 등 업소 상황에 맞는 석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뛰어난 맛**
 - 숯불의 복사열과 원적외선 적용으로 육즙이 마르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 건강식**
 - 연기나 그을음이 고기에 묻지 않아 건강식의 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구이를

- 삼겹살, 양념갈비, 장어, 오리, 막창, 소고기 등

※저희 미가는 사후관리와 A/S를 철저히 책임지겠습니다.

제조·판매 : 미가KBR 로스타 문의 **전화 010-5510-9254**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050번지